

## 요약

영국 로이드시장협회(LMA)는 국가별 신체상해 배상 수준과 배상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 2024년 국제 신체상해지수(BII)를 도입함. 분석 결과, 중증 신체상해 배상액은 일부 국가에 집중된 반면, 경미한 신체상해 배상액은 국가 간 비교적 균등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국가별 자연손해금 제도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최종 손해 규모도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됨

- 영국 로이드시장협회(Lloyd's Market Association; LMA)는 국가별 신체상해 배상 수준과 배상 환경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024년 국제 신체상해지수(International Bodily Injury Index; BII)를 도입함<sup>1)</sup>
  - 국제 신체상해지수(BII)는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주요 96개 국가 및 주를 대상으로, 40세 전문직 기혼 남성(자녀 2명)을 가상의 피해자로 설정하여 신체상해 평균 배상액을 산정한 지표임
    - 분석 대상은 유럽 26개국, 아시아 22개국, 중남미·카리브 20개국, 아프리카 10개국이며, 연방제 국가인 캐나다의 주(Province), 호주는 주(State) 단위까지 세분화함
    - 상해 유형은 ① 경미한 상해, ② 팔 또는 다리 골절, ③ 무릎 아래 절단, ④ 양안 실명, ⑤ 정신적 상해, ⑥ 중등도 뇌손상, ⑦ 전신마비, ⑧ 사망 등 총 8개 부문으로 분류됨
- 국제 신체상해지수(BII)의 분석 결과, 전신마비·중증 뇌 손상 등 중증 신체상해 배상액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등 일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남<sup>2)</sup>
  -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법정 교통사고 피해자 급부 제도(Statutory Accident Benefits Schedule; SABS)<sup>3)</sup>를 통해 신속하게 의료·재활·간병비 등을 우선 지급하고, 중증 신체상해 피해자에게는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허용하고 있음<sup>4)</sup>
    - 2023년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은 피해자는 법정 교통사고 피해자 급부 제도(SABS)에 따른 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모두 인정받아 총 50만 캐나다달러(약 5억 원)를 보상받았음<sup>5)</sup>
    - 2026년 7월부터 일부 기본보장이 선택 특약으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의료·재활·간병비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휴업에 따른 소득상실 보상(Income Replacement)은 제외될 예정임<sup>6)</sup>

1) Lloyd's Market Association(2024. 10.), "The LMA International Bodily Injury Index"

2) Lloyd's Market Association(2026. 4.), "Severe bodily injury claims drive widening cost gaps between different jurisdictions worldwide"

3) 법정 교통사고 피해자 급부 제도(SABS)는 교통사고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의료·재활·간병비와 소득상실액 등 법정 보험급여를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임. 우리나라의 자기신체사고 담보 및 자동차상해 담보와 유사한 성격의 보장제도로 볼 수 있음

4) Government of Ontario(2026), *Ontario Regulation 34/10: Statutory Accident Benefits Schedule - Effective September 1, 2010*

5) Ontario Superior Court of Justice(2023), "Brooks v. Culnan, 2023 ONSC 5415"

6) Insurance Bureau of Canada(2026), "Ontario Auto Insurance Changes"

-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자동차 대인배상책임보험(Compulsory Third Party; CTP)과 평생 치료·간병 지원제도(Lifetime Care and Support Scheme; LTCS)를 운영하는 동시에, 전신장애율이 10%를 초과하는 피해자에게는 통증·고통 등 비경제적 손해와 장래 소득상실액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함<sup>7)</sup>
- 2025년 전직 경찰관이 교통사고로 팔이 절단되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건에서 총 230만 호주달러(약 24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으며, 이 중 112만 호주달러(약 11억 원)는 소득상실액으로 인정됨<sup>8)</sup>

○ 반면, 경미한 신체상해 배상액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전년 대비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함<sup>9)</sup>

- 유럽 주요 국가의 경미한 신체상해 배상액은 대체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잉글랜드와 웨일스는 2024년 2,924파운드(약 595만 원)에서 2025년 3,051파운드(약 621만 원)로 약 4% 상승하는 데 그침
- 이와 달리 헝가리는 같은 기간 150만 포린트(약 744만 원)에서 250만 포린트(약 1,240만 원)로 증가해 전년 대비 약 66% 상승했으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헝가리는 2025년 법정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약 9%, 기술직 최저임금을 약 7% 인상한 데 이어 추가 인상도 예정되어 있으며, 임금 상승이 휴업손해와 소득상실 보상액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sup>10)</sup>

○ 신체상해 배상액 외에도 국가별 자연손해금 제도<sup>11)</sup>는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최종 손해 규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아르헨티나는 손해배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국립은행의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자연손해금을 산정하고 있어, 고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적용 금리가 약 97%까지 폭등했으며, 이후에도 40%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함
- 2024년 아르헨티나 정부는 신규 산재보험 관련 소송이 12만 5천 건을 초과하는 등 보험회사의 소송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5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송 손실을 반영한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을 의무화함<sup>12)</sup>
- 스페인은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사고 발생 후 2년간은 법정이자율에 50%를 가산한 자연손해금을 부과하며,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 시까지 연 20% 이상의 자연손해금을 적용함<sup>13)</sup>
- 2024년 스페인 대법원은 의료과실로 환자가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사건에서, 항소심이 총 34만 3,417유로(약 6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한 이후에도 취리히 보험회사가 책임을 다투며 보험금 지급을 지연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보험계약법(Ley 50/1980)」에 따른 자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sup>14)</sup>

○ 따라서 글로벌 보험회사는 국가별 신체상해 배상 환경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보험료 산정과 책임준비금 적립 등 리스크관리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sup>15)</sup>

7) NSW Legislation, Motor Accident Injuries Act 2017 No 10

8) The Guardian(2025. 8.), "Former NSW police officer who lost her arm after a car accident awarded \$2.3m by the court"

9) Lloyd's Market Association(2026. 4.), "Severe bodily injury claims drive widening cost gaps between different jurisdictions worldwide"

10) Eurofound(2025. 3.), "Minimum Wage in Hungary"

11) 우리나라는 손해배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자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함

12) Superintendencia de Seguros de la Nación, Resolución SSN N° 127/2024

13) Jefatura del Estado, Ley 50/1980, de 8 de octubre, de Contrato de Seguro

14) Tribunal Supremo Sala de lo Civil, Sentencia núm. 853/2024, de 11 de junio

15) Lloyd's Market Association(2026), "Understanding International Bodily Injury Award Trends"